

인터넷으로 불국토 앞당긴다

태국서 23~27일 국제네트워크 참여불교대회

인권, 여성, 사회개혁 등의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불교가 국제적인 통상망인 인터넷을 통해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북쪽에 위치한 매희손(Mae Hong Son)에서는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해 불국토를 실현을 앞당기고자 인터넷에서 맹렬히 활동하고 있는 각 단체장들이 국제 네트워크 참여불교(International Network Engaged Buddhism, 약칭 INEB)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INEB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각 단체간의 긴밀한 공조체제 속에서 대사회 참여 불교 운동을 면밀히 진행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INEB 대회에는 슬라크 시바라크사(Sulak Sivaraksa, 태국), 엘런 세나우크(Alan Senauke, 미

국), 마루야마(Rev. Maruyama, 일본), 바우 록핸드(Bhau Lokhande, 인도) 등을 비롯 약 30여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회 준비에 앞장섰던 슬라크는 작년 12월 스웨덴 의회에서 제2의 노벨상으로 알

려진 <정의로운 생애>를 수상한 바 있는 태국의 대표적인 사회운동가이자 독실한 불교신

INEB 활성화를 위해 재정, 정책, 단체간의 연계성 등의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류한다. 특히 INEB는 이번 대회를 통해 UN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당찬 포부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이 대회에서는 INEB의 현안 토론 이외에도 베네티아 할기의 작품 <진리의 공명, Dhamma Park>이 비디오로 상영되며, 아

오중욱 기자

평화·인권·여성 등 인류문제 해결 모색 단체간 협력강화·'UN 자문기관' 추진도



◇선암사는 건축미학사에 중요한 표본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은 유명한 선암사 승선교(보물 제40호).

선암사건축 공간미학 빼어나

김홍식씨 밝혀... 선종·천태·밀교방식 혼용

순천 선암사는 선종에서부터 밀교계통의 공간미학까지 담겨져 있으며, 건축미학사에 중요한 표본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홍식교수(명지대 건축과)는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문화재 28호>에서 '순천 선암사의 공간미학-조선 후기 선종의 공간미학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교수는 선암사가 유식(법상종)처럼 3층석탑을 쓰고 문지 앞 자리에 석축과, 강당 자리에 석축이 있는 것은 화엄의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 중문 앞과 강당 앞에 높은 축대(팔상전 불조전)를 쌓은 것으로 보아 선종이 그 뿌리를 화엄에 두었음으로 추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통 해탈문 안에 천문문이나 금강문을 두고 다락집을 대웅전 앞에 주는 일반적인 양식과는 달리 선암사가 이와는 반대의 양식을 보이고 있는 것은 천태종 사찰을 계승해서 변용하다보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승선교 아치 안의 음액같은 용머리는 태허(태음)가운데도 소양이 있다는 당시 사상철학, 즉 음양의 미학이 지배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비탈위에 서 있는 일주문은 우리나라 선종사찰의 진입에서 지주 쓰이는 방식으로 음악적 울동을 주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원통전 공간은 대웅전과 지장전 틈새가 경계가 되고 대웅전 뒤의 뒷마당이 중경이 되며, 불조전과 팔상전이 이루는 비좁은 틈새가 원경이 되는 원근법적 시간·공간미학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95 화제의 박사논문

노귀남씨 '한운운 시의 相 연구'

실천을 중요시했던 '대승불교 사상'에 바탕을 둔 '상(相)의 개념'을 도입해 한운운의 문학세계를 분석한 논문이 발표돼 화제를 끌고 있다.

사상과 문학을 매개하는 연구의 방법론으로 '相'의 개념을 원용한 노귀남씨는 95년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인 <한운운 시의 '相' 연구-시집 '님'의 침묵>을 중심으로 한 운운 시와 관련해 발표된 연구와 다른



불립문자·선·실천 연기적구도 현실참여로 회향

방식의 개념으로 한운운 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노씨가 주제와 대상의 관계인 '相'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토대로 삼은 것은 <금강경>과 <대승기신론>. '相'은 원래 불교용어로 물질과 정신의 일체만을 의미하는 법과, 초월을 말할 때 체로서의 법과 상통하는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강경>은 중심사상이 초이면서 공을 직접 언급한 바가 없으며, 단지稻을 거듭 부정하는 파격적인 사고의 전환을 통해 초을 간파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일명씨 '삼국유사에 나타난 가족윤리'

<삼국유사>를 가족윤리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그속에서 부부관계 및 효의 윤리를 다룬 논문이 나왔다.

김일명씨는 95학년도 동국대학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인 '삼국유사에 나타난 가족윤리에 관한 연구'에서 <삼국유사>가 다루고 있는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간의 유행과 특성을 분석했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김씨가 개념화한 동고동락형(형제사-아리영 유행), 문화융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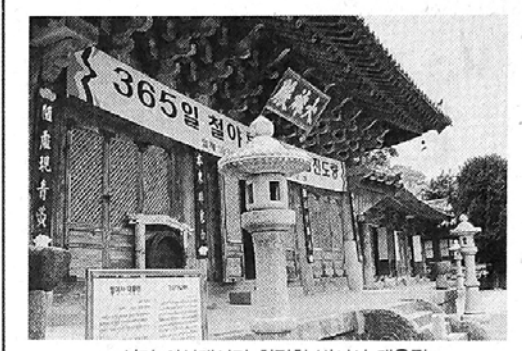
"출가는 효이자 善" 인식 생활속의 정토추구도 엿보여

(서동-선화 유행), 정락혼인형(춘추-문회 유행), 자유재혼형(원효-요석 유행), 선공후사형(김계상-국대부인 유행) 등 다섯가지의 부부관계유행.

특히 원효와 요석의 경우는 승려와 공주라는 신분을 인간대 인간으로서의 만남으로 윤리적 제한을 뛰어넘었으며, 요석의 재혼은 보아 이 시대의 여자의 재혼문제는 신분고하에 관계없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미루어 <삼국유사>에 나타난 부부관계의 윤리적 특성은 인적적 평등관계를 유지했으며 '정절'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어 일반적이 아닌 상방적 윤리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출가 문제와 현세적 효는 '효선' 편 진정성남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정리했다. 이들 사제를 볼 때 당시 사회는 출가와 효가 둘이 아니라는 건강한 윤리 의식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또한 효의 사회적 확대제로써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는 당시 시대에는 공공분모인 孝·효를 끄집어 범으로써 삶과 유리되지 않은 우리의 일상성에서 淨土를 구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영우 기자)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범어사 대웅전.

범어사

대웅전

摩訶大王(마하대법왕)
無短亦無長(무단역무장)
本來非眞白(본래비참백)
隨處現靑黃(수처현청황)

거룩하고 위대하신 범법님은
좁지도 또한 길지도 않으시며
본래 향기로운 말씀도 아니시며
모든 곳에 근거따라 황청으로 나타나신다.

권영한

뜻이다. 길다 짧다 하는 인식은 부처님 법의 크기를 재는 척도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처님아말로 자각히 커다란 긍정인 셈이다.

'눈높이 설법' 펴시는 부처님 그려

해설 범어사는 부산시 금정구의 금정산에 위치한 조계종의 제14교구 본사다. 금정산의 수려한 자락에 세워진 이 절은 신라의 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웅전은 보물 제434호로 조선 숙종때 중창됐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방형평면을 이루고 있다. 주련의 내용은 부처님의 법이 위대한 이유를 매우 멋지게 표현하고 있다.

우선 중간의 2,3구에 표현된 '...아니시며'라는 부정의 성격을 파악해 보아야 한다. 범어사는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법이 위대한 이유는 매우 멋지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냥 '향기롭다'는 의식적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뜻에서 부처님법을 사용한 것이다. 여기서 '님'자는 '말하다' '말씀'의 의미이다. 우리가 흔히보는 경의 구에서 '...주인 백(白)'할 때와 같은 의미이다. (안동 경안중 교사)

24일 '불교와 기독교 비교연구' 월례발표회

보조사상연구회(이사장 현호)는 오는 24일 법원사에서 '연구회 월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회의 주제는 '불교의 법과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에 대한 비교연구의 가능성 고찰'이며 발표는 류제동씨(서강대 종교학과 박사과정)가 맡는다.

한편 보조사상연구원은 매월 2회에 걸쳐 '불교 유식론'과 '보조어록' 강독을 개최한다. (승가대 '불교사 연구' 창간 '폐사지 간보'도 2회 간행)

포교현장의 전문법사양성 (3년과정)

'96학년도 동산불교 전문연구원 신입생 모집

1. 불교전문연구원 개설 취지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에 따라 부처님 가르침의 필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이제 대승불교의 상구보리, 화해증생, 보살도를 중생속에 실천하는 사명감 있는 전문법사, 포교사를 양성코자 3년과정의 동산불교 전문연구원을 개설함.

개강 : 1996년 3월 4일 (월), 5일(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96.3.4 ~ '96.7.29)	부량수경 (장희옥 교수 : 건 동국대 교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96.3.5 ~ '96.7.30)	유마경 (박종 교수 : 한국인성개발 연구원장)

※과목별 주 1회 강의(1학기 5개월)

2. 교과목 및 교수

경전과정 (매주 월요일)	1학년	2학년	3학년	교수
1학기 무량수경	1학기 화엄경(심지풍)	1학기 아함경 I	• 무량경 스님(전 포교원장)	• 한보경 스님(동국대 교수)
2학기 대방광사상	2학기 아함경 II	2학기 금강경	• 흥법 스님(승가대 교수)	• 정병호 교수(동국대 교수)
응용과정 (매주 화요일)	1학기 유마경	1학기 불교미술	1학기 불교의식 I	• 권기중 교수(동국대 교수)
2학기 구사, 유식	2학기 비교종교론	2학기 포교당경연론	1학기 불교의식 II	• 박은국 스님(불교문화연구원)
				• 한정설 박사(불교문화연구원)
				• 홍성진 교수(동국대 교수)
				• 박종 교수(한국인성개발연구원)
				• 정희우 교수(동국대 교수)

※과목별 주 1회 강의(1학기 5개월)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정규반(30명)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고양대학(2년)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장 ④ 불교고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96년 2월 3일 ~ 3월 2일 (토)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 ~ 9시 (본연구원 빌딩)	동산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업이 어려운 자만 지원 가능
통산반(30명)	①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② 포교사 취득자					

4. 입학금 : 입학만원

5. 졸업자격 : 경전과정(6과목 이수), 응용반(5과목 이수) 합하여 11과목 이상 이수자에 연구원 졸업장(신분증사)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문의전화 : 732-1206 ~ 8, 722-0408 / FAX : 732-1207

동산불교 전문연구원 원장 무진장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반야회 회장 김재일

1996년도 도시생활 포교사를 위한(1년 과정)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동산불교의식교육원 개설 취지

종교의 생명은 의식에 있습니다. 불교의식처럼 다양하면서도 정당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문으로 구성된 불교의식은 장중·엄숙하기는 하지만 너무 전문적이라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제 한글화한 불교의식의 속달로 생활 속에서, 특히 경조사에서 불교의식 집전은 불교대중화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동산불교대학에서 개설하는 한글불교의식교육 1기생을 모집합니다.

2.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96년 3월 9일 (토) 오후 2시 30분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운곡스님

한글불교의식 I (상반기)	한글불교의식 II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송주 청암열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일·돌·생일 의식과 칠초의식 장례의식 (1) 일반의식 장례의식 (2) 임종·매장·화장의식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 의식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장소
정규반 50명	• 한글불교의식 희망자 • 포교사 취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96년 2월 5일 (월) ~ 3월 8일 (금)	매주 토요일 오후 2:30 ~ 4:30 (동산법당)

4. 입학금 : 입학만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 본 교육원 사무국 (732-1206-8 / FAX : 732-1207)

6.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자격 수여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